

교육부 “조선대 총장 즉각 복직”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은 징계권자 기속...별도 조치 무의미”

법인 등 “사립교원 임명권 이사회에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

조선대학교가 전임 총장 업무 복귀와 차기 총장 선출 문제 등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사분오열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강동완 전 총장의 즉각 복직이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내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5일 교육부와 강동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즉각 복직이 가능하느냐”는 강 총장 측 질문에 “그렇다”고 유권해석했다.

교육부는 회신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소청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곧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 시점으로 소급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만큼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소청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직위해제에 이어 올해 3월 내려진 법인 이사회의 총장 해임 결정은 무효화 돼 즉각 복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교육부는 ‘소청심사위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해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변동이 일어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 자료로 예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소청심사 결과로 송달받고도 이사회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복직할 수 없고, 총장직을 수행할 경우 업무해고도 고소할 수 있다’는 법인 측 입장과 180도 달라지는 것이어서 또 다른 공방이 예상된다.

강 총장은 “소청심사에서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결정해지 차원에서 학내 갈등 치유와 대학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한 후 명예롭게 마무리하라는 뜻”이라며 “업무 복귀 후 2월말 사임, 법인이사회의 소청 결과 즉각 수용, 대학 행정 교관세력 적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혀 복귀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법인 측은 “기존 임장에 변함이 없다. 사립대 교원의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은 공무원인 국·공립 교원

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사립대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 계약으로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청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업무복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동완 총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총장직에 공식 복귀한 뒤 정년인 내년 2월 말 사임하겠다”고 밝혔

다. 정년은 내년 2월말이지만 총장 임기는 9월22일까지여서 임기를 7개월 앞당겨 중도 사퇴하겠다는 취지다.

명예회복과 대학안정 차원에서 우선 공식복귀한 뒤 차기 총장의 조속한 선출을 위해 중도 사퇴하겠다는 의지로 임한다.

교수평의회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전제조건 없이, 사퇴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며

강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공식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법인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반발, 최근 관할 대전자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학내 최고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혁신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방안 제출시한인 8월10일에 맞춰 지난달 24일 차기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공고하고 지난주 1차 토론회도 가졌다.

임시이사 체제인 조선대의 총장 선출 방식 결정권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 4자 협의체인 대자협에 있다.

조인호 기자



국지성 호우 조심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자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 이날 오후 3시15분을 기해 호우경보를 발표했다.

광주세계수영 여자 수구선수 몰카 일본인 출국정지

2019 광주 세계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수구 경기를 준비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일본인 A(37)씨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과 검찰 지휘를 받은 뒤 법무부 측에 검찰 지휘서(정식 출국정지 요청)를 보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이 조치했다.

A씨는 전남 오전 11시45분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 관람객 출입금지구역에서 디지털 카메라(DSLR)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귀국이 무산된 A씨는 경찰에 “연습장면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카메라에선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10분 분량)이 발견됐다.

A씨는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대회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뒤 경찰에 임

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A씨가 특정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카메라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 뒤 보강 조사를 벌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조업 중 실종된 선원 6일만에 숨진 채 발견

해상에서 조업 중 실종된 50대 선원이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전 10시28분께 영광군 낙월면 대각서도 북서쪽 1.8km 해상에서 시신 한구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상순찰 중인 지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번사자를 인양, 목표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지문을 감정한 결과 A(55)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영광군 상남월도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된 G호 선원으로, 해경은 그 동안 인근 해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목포해경은 선정을 상대로 정확한 해상추락 실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면허 교통사고넌 뒤 가게 들진 1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운전면허없이 렌타카를 몰다 잇따라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6)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4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 북구 임동 모 교차로에서 쏘렌토를 몰다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주변 화점포 가게로 돌진해 유리창을 부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신호를 위반해 상대 차량과 정면 충돌한 뒤 가게 유리를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방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가게도 휴무로 부상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군이 평소 알고 지내던 B(21)씨가 렌타카를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가게까지 빼앗은 폭력조직원 2명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한 뒤 상환을 독촉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제한법 위반·상해)로 이모(35) 씨와 노모(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11일 지인 C(33) 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간 총 2250만 원을 받아 챙기고 부동산임대차계약 작성을 강요 C 씨가 운영하던 술집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 3명에게 최근까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삼승적으로 폭행, 협박해 C 씨에게 전치 2주기량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이하 이자율의 5배에 육박하는 12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 씨 등이 제때 이자를 내지 않으면 따로 불러내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듭 위협하고 가족들에게 일선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C 씨 등 3명에게 빌려준 돈은 5000만 원이나 원금·이자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에게 ‘복돈을 급하게 빌려 주겠다’며 접근했으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분석해 여죄를 조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여수 백도 해역서 낚시한 낚시배 적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여수시 삼산면 백도 해역에 침범한 낚시배 선장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낚시꾼 6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6시 50분께 북동쪽 북동쪽 해상에 무단 침입한 낚시배 H 호(4.0㏊·승선원 7명) 선장 A (51) 씨와 낚시행위를 한 낚시꾼 6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장 A 씨는 12일 오후 12시 30분께 거문도항에서 낚시꾼 6명을 태우고 출항해 상백도 50m 해역까지 진입해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선상 낚시를 한 낚시꾼 B (55) 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벌써 4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에 입도하거나 200m 해역 안에 무단 침입한 낚시배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을 적발했다”며 “낚시배 종사자와 낚시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행위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